



##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소중한 유산, ‘물’

글 권덕희 \_ 공무원

우리는 하루 20 정도의 물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몸도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 없이는 단 며칠밖에 살 수 없음에도 평상시 물의 중요성을 잊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천리가 금수강산이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원한다면 항상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선물 중에 으뜸가는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 방울의 물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쪽인가? 아니면 물을 물 쓰듯 하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쓰는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물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면 ‘우리나라 금수강산, 산자수명’ 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필요 이상의 물을 사용한다면 앞날에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훌륭한 유산은 소중한 자원인 ‘물’이며, 물을 아껴 쓰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 화장실, '에티켓 벨' 설치

글 김경숙 \_ 중학생

현재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일부 공공기관 화장실에서는 여성 화장실에 '에티켓 벨'이 설치돼 있지만, 관공서, 우체국, 은행, 학교 등 공공기관에도 이 '에티켓 벨'이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여성들은 자신의 용변 소리를 부끄러워해서 '에티켓 벨'이 없으면 계속해서 물을 내려 보내곤 합니다. 엄청난 물 손실이지요. '에티켓 벨' 설치가 당장은 돈이 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절약되는 일이 아닐까요?



### 즐거운 불편

글 윤경옥 \_ 주부

'물이 천천히 빠지는 세면대'는 어떨까요?

물이 빨리 빠지게 되면 걱정 없이 칼칼 물을 틀어놓고 쓰잖아요. 이때 물이 천천히 빠지게 된다면 물을 세게 틀어놓고 쓸 수 없겠죠. 금방 넘쳐 버릴 테니까요.

조금은 불편해 지겠지만 물을 아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즐거운 불편' 아닌가요?



### 좋은 습관, 함께 나눠요~

글 hahasea님 \_ 초등학생

그냥 버려지는 물이 아깝기도 하였고,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불편해서 양치질을 하며 입을 행굴 컵을 마련했다. 내가 양치컵을 갖고 다니니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나씩 장만들을 했다. 만약 내가 준비 하지 않았다면 필요 이상의 물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을 것이다. 처음 친구들은 '어때 양치질 금방 끝낼 건데~' 라고 했지만, 컵을 사용 하는 내 모습을 관찰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모두가 컵을 사용한다.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 물사랑, 자주자주 말해요~

글 st918 \_ 주부

오늘 아침 딸아이는 "엄마, 엄마" 부르더니 책에서 봤다면서 "설거지 할 때 기름기를 밀가루로 씻어내면 감쪽같이 기름기가 가시고 물을 왕~창 아낄 수 있대여."라고 귀땀을 해준다.

물 아끼는 실천을 어떻게 해볼까 종종 혼자 말처럼 던졌더니 알게 모르게 딸아이에게 물은 아껴야 하는 것으로 세뇌(?)되었나 보다. 어쨌든 꼭 필요한 이야기는 자주 들려주는 것이 함께 하는 물 아끼기에도, 바른 사람으로 커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분 좋은 발견이 있는 날이다^^



\*본 글은 우리 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